

예언과 선동: 우상화는 죽음이니

구미정_이은교회 목사

1. 예언

예언(預言)은 예언(豫言)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것도 예언자의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 임무다.¹⁾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지만, 황홀경에 빠져 신탁을 전하는 자와도 다르다. 예언자는 단순한 심부름꾼 이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눈과 동기화되어서(겔 3:12, 14 참고) 주님의 땅을 지키는 “파수꾼”(호 9:8)이고 “주님의 특사”(학 1:13)이며 “주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렘 23:18)이다.

영어로는 ‘프라펫’(prophet)이라고 옮긴다. 프라펫은 그리스어 ‘프로페테스’(prophetes)에서 왔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문법에서 프로페테스는 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제우스는 티레시아스를,²⁾ 바쿠스는 오르페우스를³⁾ 프로페테스로 삼았다. 델피의 신전에서 신탁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프로페테스였다. 프로페테스의 ‘프로’가 ‘앞’(前)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 예언이 대개 장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까닭에 프라펫은 예고자(豫告者)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70인역 성경』의 번역자들, 곧 그리스화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나비’(nabi)를 프로페테스로 옮긴 덕분에 우리도 예언자를 예고자로 넘겨짚곤 한다.

히브리어 ‘나비’도 간단하지 않다. 이 단어는 수동태인데, 밖에서 오는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된 인간을 가리킨다.⁴⁾ 20세기의 위대한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나비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지닌 자, 또한 마찬가지로 악마 혹은 거짓 신의 힘에 복종하는 자, 그 부름이나 힘이 자신에게 덧씌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⁵⁾고 지적한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는 일관되지 않다.

1) 구미정, 『구약 성서: 마르지 않는 삶의 지혜』(사계절, 2015), 237.

2)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테베의 눈먼 예언자다.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그의 예언에서 비롯된다.

3)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음악가이자 예언자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아 저승까지 내려간 이야기로 유명하다.

4) ‘나비’의 동사형인 ‘니바’(nibba)나 ‘히트나베’(hitnabbe)는 아카디아어로 ‘부르다’를 뜻하는 ‘나부’(nabu)와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William F.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Monotheism And The Historical Process*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40), 231-232. 여기서 저자는 아카디아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나비가 하나님에 의해 신의 뜻을 전달 하라는 부름을 받은 인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 이현주 옮김(삼인, 2023), 582. 각주 46 참고.

5)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 582.

나비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왕상 18:4, 13; 19:10, 14), 바알의 450명 예언자들(왕상 18:19, 22, 25, 40)과 아세라의 400명 예언자들(왕상 18:19)을 일컫기도 한다. 더 고약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렘 23:25)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렘 23:26)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선동한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와 아마샤를 비교하면 예언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⁶⁾ 여로보암 2세 시절(대략 BC 786~746)은 북왕국(이스라엘)의 화양연화(花樣年華), 말 그대로 꽃시절이었다. 국가의 부가 팽창하여 이 정도면 살 만하다, 역사의 황금기다, 자화자찬할 만했다. 아시리아는 쇠약했고 시리아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여로보암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경을 확장했다. 약소국이, 분단국이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새마을노래)를 목놓아 부르다가 마침내 꿈이 이뤄졌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모스는 남왕국(유다) 출신이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드고아가 그의 고향이다. 직업은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암 7:14). 어느 날 홀연히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양 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7:15)하셨다. 개인적으로 예언자가 될 마음도 없고 예언자 무리와 어울려 다닌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다. 그런 이가 북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한다. 남의 집에 와서 감 놈라, 배 놈라 한다. 하나님의 말이라면서 지독한 독설을 퍼붓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른다”(1:2).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렸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저마다 두려워 할 행복이/언제나 자유로운 곳”(〈아! 대한민국〉)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데, “잔치는 끝났다”(6:7)며 찬물을 끼얹는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 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6:1-7).

6) 구미정, 『구약 성서: 마르지 않는 삶의 지혜』, 238-240 참고.

강조하지만, 예언자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동기화돼 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다들 문제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도 예언자의 눈에 걸리면 재앙이 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아! 대한민국〉)다는 환상이 예언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비싼 상아로 장식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3:15), 비단 베개가 있는 화려한 침대(3:12)가 대중의 눈을 가릴 때, 예언자는 부의 편중을 꼬집는다.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4:1)라고 고발한 ‘술 취한’ 부유층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8:4) 한다. 소수의 부는 다수의 ‘피땀 눈물’에 기생한 대가다.

예언자는 “되는 줄이고, 추는 늘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8:5)는 행위가 망국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기업이 살려면 융통성도 부리고 그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정석대로만 할 수 있나, 보통사람이 별것 아닌 양 뒷구멍으로 째짜미하며 넘어가는 일도 예언자에게는 세상이 끝장날 짓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 다니는 현상이(8:6) 뭐 그리 대수라고 저리 떠드는가?

예언자는 침소봉대(針小棒大)가 특기다. 세상 사람들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 신문 맨 뒤쪽 맨 아래 한 줄짜리 보도에 확대경을 들이댄다. 노발대발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명사도 아니요, 대중을 사로잡는 셀럽도 아니며, 그저 그렇고 그런 이름 없는 가난뱅이들이 흔하디흔한 불의를 당했다고 해서 그게 망국에까지 이를 일이나 말이다. 대체 왜 이토록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그리 느끼시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느낌을 공유한다. ‘주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아파하시는지 저절로 알게 됐다. 앓과 느낌은 별개가 아니다.⁷⁾ 머리는 “심장에 깃들여 있는 오장육부”⁸⁾이지 심장과 따로 노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하나님의 ‘정념’(pathos)을 강조한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다.⁹⁾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홀로 앉아 영원한 이데아를 명상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색보다 사람에게 가 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창조세계 안에서 시시각각 펼쳐지는 역사의 우여곡절에 관심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다림줄”(7:7, 8; 애 2:8)과 맞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하신다. 그 다림줄이란 하나님의 당부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5:24).

7) 이 문장으로 나는 ‘기독교는 플라톤주의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의 논문, “기독교여성의 몸, 폭력과 구원 사이: 렘브란트의 <밧세바>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31집(2014), 41-73, 특히 45-46을 볼 것; 또한 나의 논문, “동물의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 영화 <노아>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33집(2014), 11-44, 특히 23-28을 볼 것.

8)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니체전집 13), 정동호 옮김(책세상, 2000), 23.

9)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 36.

다림줄이 비뚤어졌는데, 그래서 허물고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이 아모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아모스도 마음이 아픈데, 베델의 지도급 사제였던 아마샤 눈에는 비뚤어진 다림줄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다만 아모스의 보잘것없는 출신성분이 눈에 거슬릴 뿐이다. 사람을 “겉모습”(삼상 16:7) 혹은 “외모”(행 10:34)로 판단하는 습속에 발목이 잡혀 아모스의 말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다.¹⁰⁾

그는 아모스가 감히 남의 나라에 와서 “반란을 선동”(7:10)한다고 고발한다. 당장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 나라로 꺼지라고,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7:12)라고 모욕한다. 예언자를 점쟁이로 취급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건 그의 눈이 세상 권세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7:7:13)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제사장이라는 자가 보란 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능멸한다. 땅은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는 “다만 나 그네이며, …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렘 25:23) 기억을 편리하게 삭제했다.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 …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설날 그믐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신 11:12)을 개인의 소유로 치환했다.

2. 선동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떠돌이요 나그네였다(창 23:4). 그는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창 13:2)였으나, 결정적으로 땅을 갖지 못했다. 죽은 아내를 묻어줄 땅빼기 하나 없어 구걸하다시피 장지를 사야 했다(창 23:16). 그가 땅을 소유하지 못한 까닭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다. 옛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지 않았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기가 살던 땅, 자기가 속한 무리를 떠난 나그네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웠다.¹¹⁾ 땅의 소유는 정착민, 정주민의 특권이였다. 떠돌이, 나그네가 땅을 갖는 것을 그 땅의 사람들은 허용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이집트를 떠나 네겟 광야를 거쳐 이곳저곳을 떠돌다 베델 근처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삼손과 조카는 함께였다. 그러다 함께 살지 못할 변수가 생겼다. 각자 양 떼와 소 떼가 늘어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창 13:6). 게다가 양쪽 집안의 양 떼와 소

10) 점술가는 그 영적 지위가 동료 인간보다 높을 수 있다. 그의 우월성은 개인의 탁월성에 기반한다. 이와 달리 “예언자는 구성원들보다 돋보이는 개인이 아니다. 그의 특별한 부름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여러 민족과 나라, 그 너머에까지 닿는다. 그의 우월성을 가늠하는 눈금자는 보편성이다.” 아브라함 헤셀, 『예언자의 말들』, 정다운 옮김(복있는사람, 2026), 49.

11)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travel)이 14세기 어간에 처음 등장한 것만 보아도 고대인의 생활 습속을 얼추 짐작할 수 있다. 트래블은 고대 프랑스어 ‘트라바이’(travail)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현대 영어에서 ‘트레베일’(travail)은 고생이라는 뜻이다. 김영하, 『여행의 이유』(문학동네, 2021), 27.

때를 지키는 목자들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분가(分家)를 먼저 제안한 쪽은 아브라함이었다.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창 13:9). 롯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던 이집트를 잊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이집트라면 치가 떨리는 것과는 기억의 결이 사뭇 달랐다(창 12:10-20). 이집트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공기는 젊은 롯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롯은, 삼촌이 어른이니까 먼저 정하세요, 라고 인사치레할 겨를도 없이, 행여 삼촌이 먼저 그곳을 택한다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조바심으로, 냉큼 소돔을 택했다. 그의 눈에 소돔은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창 13:10).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를 배반했다.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자,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재산까지 빼앗겼다(창 14:12). 나그네의 운명이었다. 나그네는 찬밥이고 제물이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큰 부자인 아브라함은 사설 용병을 318명이나 두었다(창 14:14). 잘 훈련된 특수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 왔다. 그의 재산도 되찾아주었다.

이쯤 되면 롯은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접고 삼촌을 따라나설 수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저 “산간지방”(창 12:8)에 가서 살 생각이 조금도 없다. 도시가 그를 길들였다. 그는 도시인이다. 그래도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모를 만큼 눈이 아주 멀지는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롯은 날마다 저녁해가 넘어갈 즈음이면 성문 어귀에 앉아 나그네를 기다렸다. 나그네에게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뻗속 깊이 알기 때문이다. 소설가 이승우는 「소돔의 하룻밤」에서 이 기다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해부한다.

롯은 나그네가 혹시 올까봐 걱정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그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다림이고, 성안의 남자들은 나그네가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느긋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림은 기다림을 선취한 기다림이다.¹²⁾

한 날, 저녁 무렵 두 명의 나그네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이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창 19:13)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 온 천사들이다. 이를 알 턱이 없는 롯은 서둘러, 강요하다시피,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미리 약속을 정하고 방문한 손님들이 아니었으므로 롯이 그들에게 대접한 빵에는 당연히 누룩이 없다(창 19:3). 누룩을 반죽에 넣고 발효시킬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창 19:4). 나그네를 보호하려던 롯의 계획이 틀어졌

12) 이승우, 『사랑이 한 일』(문학동네, 2020), 19.

다. 소문은 말보다 빠른 법이다. 성안의 남자들은 먹잇감을 놓치기라도 할 새라 한달음에 몰려왔다.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 좀 해야 하겠소”(창 19:5). 한목소리로 떠들었다.

누가 선동했을까? 인간의 ‘행동’(action)은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 추동되기 마련이다.¹³⁾ 신념 대신에 신앙을 넣으면 그 강도가 더 세진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의 젊은 군인들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무시무시한 자폭 공격을 감행한 배후에는 일본의 국가종교인 신도(神道, Shintoism)가 놓여 있다. 일왕을 천조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예로 믿는 신도 신앙이 일본 군인들에게 자신들을 ‘신의 바람’(神風, 가미카제)으로 정체화하도록 만들었다.

이념이든, 신념이 된 신앙이든 그것들이 인간의 불합리한 행동의 동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념이든, 신념이 된 신앙이든 그것들조차 무익해지는 순간이 있다. 인간 무의식에 깊이 자리잡은 욕망이 분출하는 때다. 욕망은 의식의 검열이 거추장스럽다. 그저 목표를 향해 직진할 뿐이다. 하여 누가 소돔 성 사람들을 선동했을까, 묻는 건 부차적이다. 그보다는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를 하나의 행동으로 내몬 욕망은 무엇인가, 묻는 게 더 적절하다.

이름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다. 이 욕망으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툭툭 뭉쳐 있다. 한통속이다. 동일자의 세계는 타자를 품지 못한다.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굴복시키고, 물화(物化)하여 끝내 무화(無化)시켜 버려야 직성이 풀린다. 오른쪽 뺨을 때리는 행동도 충분히 모욕감을 주지만,¹⁴⁾ 성기 폭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심지어 얼굴 없는 다수, 곧 집단에 의해 가해지는 성기 폭력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남긴다.¹⁵⁾

소돔 성의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하려고 한 행동이 바로 그 짓이다. 그들에게는 이 짓이 악한 짓이라는 의식이 없다. 오로지 룯만 이 짓이 악한 짓임을 안다. “여보게들, 제발 이리저리 말

13) 여기서 ‘행동’이란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세 가지 ‘활동적 삶’(Vita Activa)으로 언급한 ‘노동’(labor)과 ‘작업’(work)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아렌트는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으로 ‘(정치적) 행동’을 꼽았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한길사, 2017), 제1장과 5장을 볼 것. 번역서에는 ‘행동’ 대신에 ‘행위’가 쓰였다.

14) 왼손이 불결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는 건, 누군가 나를 왼손으로 때렸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내가 오른뺨을 맞는 경우란, 그가 손등으로 친 경우밖에 없다. 이것은 우발적인 주먹다짐이나 쌍방 대결이 아니라, 창피를 주기 위한, 곧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행동으로, 하급자를 훈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월터 윈크, 『예수와 비폭력 저항: 제3의 길』, 김준우 옮김(한국기독교연구원, 2003), 32-33; 나의 논문, “평화의 카이로스: 일상의 폭력 극복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성찰”, 『신학논단』 65집(2011), 7-41, 특히 22-27을 볼 것.

15) 여기서 모욕의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문화인류학자 김현경은 ‘모욕의 역설’을 잘 설명한다. 모욕은 타인의 인격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정당한 자가 그러한 부정을 동의하도록 강요한다. “모욕당하는 자가 모욕에 동의하는 순간, 모욕은 더 이상 모욕이 아니다. 그것은 의례의 일부이며, 질서의 일부이다. 결국 모욕은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폭력이다.”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5), 131.

게. 이걸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창 19:7-8).

롯의 타협안은 21세기 감성에 맞지 않는다. 패륜 가장의 전형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당시 맥락에 비추면 이해 못 할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소유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솔깃할 만한 ‘물건’을 내 놓 셈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그네를 보호할 참이다. 한때 소돔 남자들은 롯의 딸들에게 흥미가 없다. 그들의 관심은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들의 도시’에 온 낯선 타자·약자에게 굴욕을 선사할 생각밖에 없다. 본 때를 보여줄 생각이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창 19:9), 소리 지르며 대든다. 롯은 소돔 땅에서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십 년 넘게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타자로 취급된다. 이 대목에서 다시 소설가 이승우의 통찰을 빌려와야 한다. 그는 롯에게 대드는 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한다.

군중의 성격을 띤 집단은 행위 판단의 기준을 내부에,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혹시 내부의 재판관이라면 몰라도, 자기 밖의 재판관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내부의 어떤 필요나 요인에 의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는다. … 자기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알려 줄 자기 밖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¹⁶⁾

그들은 롯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짓을 막아서가 아니라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해서 기분 나쁘다. 그의 집에 숨어 있는 나그네들과 다르지 않은 주제여서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해서 더 기분 나쁘다. 그들보다 네가 먼저 혼 좀 나 보라고 헐박한다.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 하나같이 악하므로, 하나님의 법정에 접수된 고발장은 참이다. 천사들은 유죄를 확신한다. 롯의 가족만 구원받고 소돔은 멸망한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엮어 멸하셨다”(창 19:24-25). 고모라까지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건 소돔이나 고모라나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졌다. “아무도 남 생각은 하지 않는 세상”(사 33:8, 공동번역 개정판)이 됐다. 이 마당에 어느 땅인들 무죄일까?

16) 이승우, 『사랑이 한 일』, 28.

3. 우상화는 죽음이니

한국 사회는 12.3 내란 사태로 큰 혼돈을 겪었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왕실 친위대’를 자처한 극우기독교 세력이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며 국민을 ‘갈라치기’했다. 아니 감쌌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선동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다. 전광훈 ‘목사’와 그가 이끈 ‘광화문 집회’가 이 사태를 키웠다. 손현보 ‘목사’와 그가 이끈 ‘세이브코리아’(SaveKorea) 운동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전광훈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기총과 관련해 활동하다가 2004년 총선 때 기독교당¹⁷⁾을 창당하면서 본격적, 노골적으로 정치 행보를 벌였다.¹⁸⁾ 그에 비하면 손현보의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야 돌출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집회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손현보가 담당한 세계로교회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야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결단코 중지하지 않을 것”¹⁹⁾이라며 자신을 투사요 예언자로 포장했다. 나아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정치 활동에 가담했다.

그러다 2024년, 그러니까 12월 3일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한 달 보름 전,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제안하고 조직하면서 하루아침에 보수 우파 대중운동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급기야 2025년 초 탄핵 정국에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주도하면서 전광훈과 나란히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몸집을 불리게 됐다.²⁰⁾

10.27 집회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내걸었다는 점이 새삼 눈길을 끈다. 약칭 ‘통일교’의 정식 명칭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다. ‘가정’에 목을 맨다는 점에서 통일교

17) 당시 명칭은 ‘한국기독교당’이었으나 이후 총선 때마다 이름 갈이를 했다. 2008년 총선 때는 기독교사랑 실천당, 2012년에는 기독교자유민주당, 2016년에는 기독교자유당, 2020년에는 기독교자유통일당(약칭 자유통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자유통일당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창당했으나, 성적이 부진했다. 2021년 5월 전광훈은 새로 ‘국민혁명당’ 창당을 선언했다. 자유통일당도 이에 합류했다.

18) 배덕만, 『전광훈 현상의 기원: 한국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뜰힘, 2025); 같은 저자의 『한국개신교 근본주의』(대장간, 2010)도 볼 것.

19)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등 2021년 1월 17일자 뉴스를 볼 것. 누리집 참고.

20) 전광훈과 손현보의 정치 행보 배경에 미국의 트럼프주의와 은사주의적 기독교, 신사도운동 네트워크가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서명삼, “12.3 내란 사태의 종교적 외전: 극우 개신교와 트랜스-태평양 개신교 은사주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중심으로”, 『종교와사회』 13권 2호(2025), 25-68을 볼 것; 손현보와 미국 신사도운동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고리는 ‘빌트업코리아’라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기획한 인물은 미국 교포 출신의 김민아(Mina Kim)라는 유튜버다. 이 청년 보수 기독교인이 인터넷과 신기술을 활용해 선동하는 방식은 율리아 에브너가 관찰한 세계적 현상에 상응한다. 율리아 에브너, 『한낫의 어둠: 극단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가』, 김하현 옮김(한겨레출판, 2021).

와 극우 개신교는 서로 공명한다. 가정은 가(부)장의 권위 아래 결속된 공동생활체다. 가정이 국가로 확장되면, 국부가 요청된다. 극우 개신교가 ‘국부’ 이승만을, 그 뒤를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를, 그리고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지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이명박을 놓지 못하는 건 그 때문이다.²¹⁾ 극우 개신교가 2000년대 초반 호주제 폐지 운동 때 이것이 ‘성경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지금 가정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가족주의는 복음과 등가 교환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²²⁾ 그 사유를 연장하면, 10.27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극우 개신교가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의 기치 아래 모여, 난폭한 죽음·죽임의 언사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나아가 1.19 폭동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전광훈의 선동에 이끌려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을 무력으로 점거한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경악스럽다.²³⁾

일부 기독교인들은 전광훈이나 손현보를 추종하는 세력과 선을 긋고 싶어 할 것이다. 기독교를 싸잡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전광훈이나 손현보가 여전히 ‘목사’로 불리는 한, 그들의 언어가 기독교이고 그들의 의례가 기독교인 한, 밖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²⁴⁾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천주교(21.4%) - 기독교(16.5%) - 불교(15.7%) 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는 불교(23.2%) - 천주교(19.9%) - 기독교(19.6%) 순,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천주교(24.7%) - 불교(23.4%) - 기독교(16.2%) 순으로 나타났다. 친근감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에 느껴지는 감정이고, 호감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감정이다. 이 두 감정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밀렸다. 종교시장에서 바야흐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²⁵⁾

21) 한국개신교와 정치적 우파의 맞물림에 대해서는,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을 볼 것.

22) 이와 관련해서는,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옮김(분도, 1996 신정판 5쇄), 85; 나의 논문,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족 담론에 기독교 윤리적 성찰: 한 에코페미니스트의 관점”, 『신학논단』 62집(2010), 7-30, 특히 20-22도 볼 것.

23) 2025년 1월 19일에 한국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점거 폭동은 2021년 1월 6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Capitol Riot)을 떠올리게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패배하자, 이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며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마침내 ‘부활’한 데는 미국 신사도운동의 역할이 크다. 서명삼, 윗글, 특히 43을 볼 것.

24) 기윤실은 2023년 2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케이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5) 이 조사를 언급하며, 그러나 개인주의 시대에 신앙이 가족주의화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내가 쓴 글이 있다. 정재영 외,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탈교회 시대의 가족종교화와 그 전망』(Ivp, 2026), 3장 “개인주의 신앙과 가족 종교의 교차점” 참고.

더러는 감지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저리도 돈이 많고 땅이 많은데, 저토록 위풍당당하게 권세를 휘두르고 호황을 누리는데, 무슨 소리냐며 발끈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하나님의 눈은 바닥을 향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땅바닥 땅의 바닥은/하늘의 바닥 하늘바닥이다.”(이문재, <바닥>)²⁶⁾

그 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물음은 이것이다. 어째서 우리 눈은 다가오는 심판을 보지 못하는가? 어째서 우리 귀는 선동을 예언으로 알아듣는가? 이 지점에 우리의 욕망이 자리한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 안겨준다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순수한 욕망, 그게 문제다. 이 욕망은 다른 욕망의 틈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다. 이 욕망은 단박에 여럿을 하나로 엮는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어떻게 예언자와 선동가를 구분하는가? 무엇이 한 인간을 예언자가 되게 하는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설명이 탁월하다. 그는 심리학과 신학을 대조한다. 심리학은 예언자의 영감을 상상력이나 잠재의식으로 해명하려 든다. “예언자 개인의 체험, 열정, 긴장, 절망 등 그 흔적을 밝아가면” 예언은 “이른바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의 산물”²⁷⁾이라는 심리학적 접근이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헤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언의 본질은 ‘초월’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표현이 아니라, 자아 혹은 개인의 요구들을 훨씬 뛰어넘어 솟구쳐오르는 능력의 표현이다.”²⁸⁾

그러니까 선동가는 자기 초월에 실패한 거짓 예언자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의 언어가 아무리 거룩한 언술로 도배되어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특사’를 자처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 세상사를 의논하는 친밀한 사이라고 내세워도,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예언자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삶으로 말한다. 삶은 욕망의 전시장이다. 그의 삶이 자기 욕망에 복무하는 한, 언어의 거룩함이 삶의 비루함을 상쇄할 수는 없다.

정현종 시인은 <우상화는 죽음이니>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꼬집었다. “우상화는 죽음이니/우상화하지 말라/위대하신 누구이든/우상화 법석 속에서는/우상도 시체요/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시체이니/제발 우상화하지 말라//… 우상은 癩이요/우상화는 에이즈요/하여간 전면적인 죽음이니/ …”(정현종, <우상화는 죽음이니>)²⁹⁾

요나가 처음 예언자 시험에 떨어진 건 이념의 우상화를 벗어나지 못해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게 싫다. 적국의 중심도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 심판을 면하는 게 싫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욘 1:2)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외치라는데, “주님의 낫을 피하여”(욘 1:3) 스페인으로 도망친다. 그는

26)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 앞』(문학동네, 2014).

27)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 584.

28) 윗글, 585.

29) 정현종, 『한 꽃송이』(문학과지성사, 1992), 18.

하나님을 철저히 국경선 안에 가둔다. 하나님을 사유화해 제 발아래 놓는다.

야만의 한밤이 지나는 때, 증오의 한낮이 지나는 때가 예언자의 성찰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의 사유는 초월의 하나님을 향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파토스에 접선한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스네’(떨기나무)와 같던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에서 불러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기억에 사로잡힌다.³⁰⁾ 저절로 떠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깨우셨다.

이 기억이 멸망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을 일으킨다. 모세의 꿈,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민 11:29)는 꿈이 이사야에 의해 복기된다(사 49:6; 59:21).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³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사 44:1-4)

이스라엘은 더는 삼인칭이 아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몸소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불러 나와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사 55:4) 세워진다.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열방으로 확대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단단한 증언 속에서, 강조컨대 어떤 세상 권력자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제아무리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라도 하듯이 땀땀겨려도 다만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약 1:10)이라는 옹골찬 믿음에 기대어 우리가 이스라엘로 편입된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적 감수성을 나누어 갖는다.”³²⁾ 여럿이 참 하나가 된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30) 나의 책, 『구약 성서: 마르지 않는 삶의 지혜』, 그리고 『그림으로 신학하기』(서로복스, 2021), 67-82, ‘언약’ 편도 볼 것.

31)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다.

32) 아브라함 J. 헤셀, 『예언자들』, 257; 다른 글에서 나는 모든 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학자가 될 것을 요청했었다. 신학자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구미정, “생각 없이 믿는 자 유죄”, 『복음과상황』 271권(2013년 6월), 31-40 참고.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사 42:6-8; 44:6).

이 말씀 앞에 그대와 내가 서 있다. 이인칭 말씀이 모두를 부른다. 우리 겨레의 영적 스승 함석헌도 이 진리를 깨달았다. “십자가가 진리나, 그것을 예수 한 사람에만 금 곳고 인류 전체에 대 쓰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십자가의 진리된 까닭은 지는 데 있지 쳐달라는 데 있지 않다.”³³⁾ 이인칭 부름은 간절하고 다급하다. 하나님은 지금 “숨이 차서 혈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사 42:14). 그분의 손을 붙잡아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고후 6:1)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파트너를 그리워하신다. 이 시대적 책무 앞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33) 함석헌, 「말씀」 1956.